

익산시, 악취 없는 도시 조성 나서

과학적 분석을 통한 ‘악취저감 종합 추진계획’ 수립·추진
중점 관리 대상 순찰·감시 강화·상시 감시 체계 운영 등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악취저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11일 익산시에 접수된 악취민원은 2020년 3,636건에서 2024년 1,455건으로 5년 만에 절반가량 감소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익산시가 효과적인 악취 대응을 위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악취 상황실 운영과 악취 방지시설 교체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배설 1,098건 △공중변배설 176건 △기타 181건 등 총 1,455건의 악취 민원을 처리했다. 또 악취배출사업장 361개소를 점검해 238개소의 시료를 채취하고,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12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한 바 있다.

시는 올해도 악취 저감을 위해 관



리·감독을 강화하고 악취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제1·2산업단지 인근 신규 공동주택에 1만 3,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만큼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힘쓴다.

아간조업사업장 등 특별점검 대상

67개소를 선별해 야간 순찰·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악취 규모가 큰 통합 허가사업장 20개소는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업해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악취민원 중 78%를 차지한 축산악취 해소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중점 관리농가 55개소를 선정해 가축분뇨법 병행 처분, 축산악취 상시감시반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상반기에 악취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총 24대의 악취측정장비와 악취측정 차량을 활용해 상시 감시를 진행한다. 민원이 신고된 지점을 중심으로 바람 방향을 역추적해 악취 발생 위치와 성분 물질을 분석하고, 사업장 현장을 확인해 신속한 악취 차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을 지원해 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4개 사업장에 총 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생활 악취시설까지 확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악취 저감은 필수이자 시의 책무”라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악취 발생을 감소시켜 쾌적한 생활 환경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농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

저금리 대출·취득세 감면 등… 21일까지 신청 접수

군산시가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용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어촌지역에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연 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할 때 신축 2억5,000만원, 증축 1억5,000만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연 면적 150㎡ 이내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혜택도 다양하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선금·중도금과 토지 구입비 한도를 상향시켰다.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 공사 시행 전까지는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선금, 중도금, 토지 구입비 한도도 상향됐다. 현재 신축·개축·재축에 한한 선금·중도금은 6,000만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3,000만원, 토지 구입비 7,000만원이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신축·개축·재축 선금·중도금이 7,500만원, 증축·대수선은 4,500만원, 토지 구입비는 9,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군산시는 올해 22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21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후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2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면세유 인상액 보조금 지원

유통가격 상승에 따른 7억 6000만원 예산 반영

군산시가 유통가격 상승에 따라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2025년도 예산을 통해 확보한 7억 6천만 원이다. 기간은 예산 범위를 고려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인상분에 대하여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어업용 면세 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 어선 △어획물 운반업 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종자 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로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최근 5년 동안 어업용 면세유 평균가 대비 2024년도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유종별 리터(1)당 경유 115원, 휘발유 94원, 중유 67원을 정액 지원한다. 만약 지원총액이 예산을 초과했을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지원 단가를 조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어선·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 가 전복 도내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2025년 군산시간여행축제 본격 준비 시작

10월 9~12일 군산시간여행마를 일원서 개최

군산시가 2025년 군산시간여행축제 준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차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려 순승건 군장대 평생교육원 원장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추진위원들은 2025 축제 일정

및 축제 추진 방향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2025년 축제 일정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들은 군산시 시간여행축제만의 정체성 강화를 강조했고 이를 위한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 발굴로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초등 교육 강화… 공공형 학습관 ‘더봄’ 운영

3월 운영 시작… 원광대 자원 활용해 양질의 방과후 교육 제공



익산시가 교육청, 지역 대학과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교육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형 방과후학습관 ‘더봄’ 운영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본격 운영에 앞서 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지역 초등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 기법을 적용

한 원에 체험이 운영돼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 심신 안정 등에 기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11일에는 익산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더봄에서 개최하고, 지역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공방 △웹툰 △치어리딩 △원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프로그램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더봄의 수준을 높여갈 방침이다.

시는 단순한 방과후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더봄을 조성했다.

더봄(전화로 255)은 남중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신축된 주민커뮤니티 시설에 조성됐으며, 고등교육기관인 원광대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시는 더봄이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기회를, 학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교육기관, 지역돌봄기관 등 지역 자원의 연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로 구축 방침이다.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국립군산대학교, 13일

강임준 군산시장 특강

국립군산대학교가 13일 오후 4시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장 초청 토크콘서트 ‘군산시장에게 바란다’를 개최한다.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는 각계각층 명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진솔한 경험담과 사회적 이슈들을 공유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콘서트에서 시장직을 수행하며 느꼈던 보람과 애로사항 등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경험담을 들려주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양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공간대 형성을 위한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특강을 통해 군산지역의 RISE사업 성공화 전략, 지방대학 시대를 맞이한 군산시의 상상 전략, 지역과 대학, 대학 구성원이 긴밀히 연계하여 미래 경쟁력을 갖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특강은 군산시민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63-469-1029(자율전공학부)로 문의 가능하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한눈에 보는 식품

공중위생 사업운영표 제작

익산시가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위생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2025년 식품·공중위생영업소 사업운영표’를 1만 부 제작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 9,008개소(식품 7,318, 공중 1,690)에 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운영표에는 영업신고와 행정처분을 비롯한 위생업소 공통사항과 지도·점검, 조사·수거 등 월별로 진행되는 위생행정 일정이 한 장에 담겼다.

또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전국 대표 식품 축제 ‘NS 푸드페스타 2025 in 익산’에 대한 내용과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대물림 및집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지원 사업의 정보를 수록해 행정 접근성을 높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